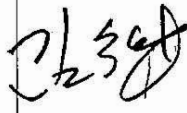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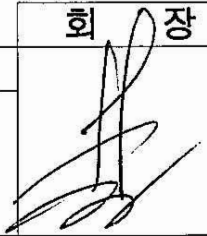


	회 장
상근부회장	
	

201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3. 7. 8.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7. 8(월) 14:00 ~ 15:25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7명 중 19명 참석(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4명) : 이동한, 고치환, 김재익, 송옥희, 부형중, 양은정, 강규진, 양은심, 양광호,
김군택, 고두승, 김호성, 황의식, 최영열

나. 위임(5명) : 임태봉, 강종화, 김금자, 김용희, 이연봉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이동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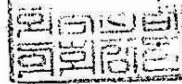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에게 고맙다고 하다. 우리 협의회 회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상언 관장이 신문지면을 통해 우리 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상언 회장과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바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6월 말까지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자는 이사님들의 결의를 통해 오늘 이사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전차회의록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낭독하다.

- 양은정 이사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3차 임시이사회 심의안건 (회원자격상실안) 최종결정의 건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1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1호 의안 제3차 임시이사회 심의안건(회원자격상실안) 최종결정의 건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이상언 회장을 비롯한 제

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회원들에게 6월 말일까지 입장표명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부연설명하고 김성건 부장에게 그에 따른 경과보고를 하도록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 이후로 6월 말까지 이상언 회장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의 별다른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지난 7월 3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 명의로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여부 확인요청이라는 문서가 접수되었다고하고 그 접수된 문서는 회의자료에 첨부되어있다고 보고하다.

- 의 장 : 일단 이상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의 6월 말까지 입장표명은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6월 14일 개최되었던 우리 협의회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자체를 부정하면서 제2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2차 임시이사회 사진속 참석이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 신문지상 공개질의,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밝히겠다는 협박수준의 요구를 공문을 통해 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지난 제2차 임시이사회는 6월 14일 개최되었으며, 그 관련 자료들은 홈페이지와 협의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복지관장에 대한 문제는 개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락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문제이기도 해서 영락교회에도 별도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며 김성건 부장에게 그 공문의 내용을 낭독하라고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영락교회 담임목사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낭독하다.

- 의 장 : 김성건 부장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우리 협의회에서는 가급적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법들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오히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이상언 관장의 답변이라든지 기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자세 등을 지켜볼때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및 참석자가 일일이 표기된 사진자료를 공문에 첨부하여 보냈다. 그리고 지난 3차 임시이사회에서 2시간 가량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이상언 회장의 계속된 자기변명들만 이어졌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이야기만 했으면 원만히 해결되었을것인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 책임을 전가하는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니 여러 이사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이 우리 협의회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부정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그 운영법인에서 알고 있는지 묻다.
- 의 장 : 현재 영락교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직접 전달했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그렇다면 영락교회에 보낸 공문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내온 공문이 첨부되었는지 묻다.
- 의 장 : 첨부되었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우리 협의회에서 6월 14일 개최한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여부가 제

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6월 14일 개최된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상언 회장이 제주일보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 6월 24일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그 소명을 듣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의결되었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그럼 본인이 신문기고한 내용에 대해 이사들이 논의를 하고 소명을 듣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이사회 개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증빙자료를 보내준것인지를 묻다.
- 김성건 부장 : 그렇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복지관장이 신문기고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협의회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라는 행동은 쉽게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이사회가 개최를 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고 그에 따라 처분하면 될것인데 일개 복지관장이 증거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관련자료를 보내고 이사회를 열었다 안열었다는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협의회에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하다.
- 의 장 :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는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는 사실이며 그 관련자료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했고 그 운영법인인 영락교회 김정서 담임목사 또한 이 일련의 문제에 대

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사회 관련자료들을 함께 보내준것이다라고 하다.

- 김호성 이사 :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자리로 알고 있다. 왜 그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 명의로 신문에 기고를 했을까, 본인이 몸담고 있는 소속 단체에 대해 총회와 같은 회의석상에서 발언해도 될 것을 굳이 언론을 통해 아라복지관 수탁 문제를 제기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청구를 한다던지 이사회나 총회에서 부당한 사항을 지적할 수 있었을텐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 협의회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한 것은 무슨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상대적으로 직원숫자도 많고 주변여건들이 좋은 상황에 놓여있어 타 복지관들이 상대적 차이로 인한 불만들이 표출된것이고 또한 이러한 복지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협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 역시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숫자를 늘린다던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본인들이 행정기관과 풀어야할 문제들을 그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책임을 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난 이사회에서 최종답변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오히려 말도 안되는 공문을 보내온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인 결론은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대로 제명처분을 내릴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원규정 제9조에 따라 회원자격상실의 결

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협의회 단체회원임으로 신문에 기고
를 한 내용을 살펴볼 때 협의회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충분히 생각되
어짐으로 회원제명 처분에는 찬성한다고 하다. 그리고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지난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는 공문 내용을 보면 복지관 및 복지관 운영이사회가 납득할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사업법 상 복
지관의 경우 운영이사회가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운영위원회가 있
을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경우 본인들 기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
는것이지 다른기관에 대한 사항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이고 또한 이 사항은 지난 제2차 임시이사회 참석 이사들과 협의회
에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으로 제주영락종합사회
복지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때에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음으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법적인 대응까지 고
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신문기고를 한것에 대해서 왜 협의회나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관장이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는
지 궁금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 그 어떤 타 법인들보
다 명확하고 투명한 단체인데 협의회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신문기고문 내용에서 밝힌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한 사회복지협의회도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처럼 사업이나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문
에 반대의견으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저 역시도 이상언 회장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신문에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데는 찬성한다. 하지만 만약 아라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반대 의견을 신문에 기고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 사회복지계가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으로 분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협의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그래서 우리가 이상언 회장에게 요청하는 것도 총회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언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협의회 명예가 실추되었음으로 사과와 내용을 신문지면에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6월 14일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여부에 대한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에서 사진속 인물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녹취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진속 인물은 누구이며 우리가 사진을 합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두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이사들이 참석했는데 이게 가능한 주장인지 묻고싶다. 여기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이 몇분 계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다. 지난 제2차 임시이사회는 틀림없이 개최되었고 저 역시 참석했고 여기계신 대다수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단지 지난 제3차 이사회에서 이상언 회장이 제2차 임시이사회 사진을 가지고 사진촬영시간이 새벽 1시 50분인가로 기록되어 이사회 개최여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 제3차 이사회에서 그것은 사진기 조작오류로 인한 실수라고 설명하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해서 끝난 문제이다. 그런데도 다시 계속해서 이런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우리 이사들은 이러

한 주장에 동요하지 말아주길 당부 드린다고하다.

- 양은심 이사 : 어찌되었든 사진촬영시간이 잘못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오해의 여지를 제공한것에 대한 부분은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 사항은 지난 이사회에서 마무리된 사항인데 왜 다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이상언 회장 본인도 그 내용에 대해 수궁을 하고 끝난 사항임으로 더 이상 이 내용은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김수완 상근부회장에게 이상언 회장이 공식적인 정보제공요청이 있지 않았음에도 사진자료 등을 제공한 것은 사무처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사진촬영 시간의 문제도 사진기 관리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다.
- 김수완 상근부회장 : 사무처에서 사진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과 사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상언 회장이 홈페이지 등록된 사진을 다운로드한 것이고 또한 사진촬영시간은 사진기 조작실수로 이미 이상언 회장이 확인하고 수궁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 고치환 부회장 :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분명히 이상언 회장이 사진촬영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수궁했음에도 지금와서 모른척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모두 종결된 사항으로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회의시간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음

으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부형중 이사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강규진 이사 : 지난주 이상언 회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중에 지난 6월 14일 제2차 임시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묻기에 나는 매일 일정을 수첩에 메모하고 있다고하고 수첩을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송옥희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묻기에 제2차 임시이사회에 분명히 참석했고 자리도 내 옆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지금 이 공문을 보니 아직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의 화합을 위해 큰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행동해 달라고 하니 이미 본인을 포함한 몇몇 복지관장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마음이 떠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다.
- 송옥희 부회장 : 6월 24일 제3차 임시이사회를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2차 임시이사회로 잘못 알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다.
- 김군택 이사 : 오늘 논의안건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그리고 김호성 이사가 제시한 의견인 회원규정 제9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번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내온 문서내용을 보면서 문서의 성격과 그 배경을 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법정단체인 우리 협의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회의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공문 내용은 갖은 압박과 협박성이 농후하다. 우리 협의회는 권위와 존재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난번 이상언 회장이 참석해서 답변하는 내용들과 그 회원들인 복지관장들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파악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이번 문제가 개인의 자질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되었다. 최근 포용의 리더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을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사회복지협의회가 갈등의 요소가 생겨났을 때 만일 직접적인 맞대응을 한다면 외부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음으로 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인의 자질문제인지, 단체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지역 사회복지계의 문제인지를 잘판단하시고 가능하면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하다. 그리고 이번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대한 불신인데 이 사항은 솔직히 명예훼손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보여지지만 공식적으로 이런것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임시이사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한것이고 그 회의에 대한 참석자 명부와 의결된 내용들이 회의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기고문

을 살펴보았는데 충분히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고 협의회가 운영함으로서 평가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법과 규정대로만 처리하려고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들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동조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대립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한다.

- 양은심 이사 : 양광호 이사의 말씀대로 이 사안은 심도깊게 다루어야 하는것에 동의한다고 하며 이번과 같이 다른 직능단체에서 찾아올때마다 모두 받아줄 수는 없는 것임으로 전례가 되지 않도록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하다.
- 고치환 부회장 : 현재 이상언 회장 혼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을 포기하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 신문에 기고한 내용 또한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지난번 이사회때 이상언 회장과 복지관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상대적으로 타 복지관에 비해 직원도 많고 협의회의 영향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기심으로 협의회에서 수탁을 하지않으면 타복지관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하며 그 생각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하다.

- 고치환 부회장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단체회원에게 대한 회원자격 상실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상언 관장 개인의 자질 문제이지 복지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기관에 대한 자격상실 말고 이상언 관장 개인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이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한 것이 아니고 단체회원으로 가입한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고 또한 복지관이 문제가 생기면 관장이 책임을 지는것처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단체에 대한 대응만 하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는 과정에서 무슨 좋지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수탁받은것도 아니고 또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도 많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부분은 우리 협의회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뭐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우리 규정에 자격상실 외에 다른 징계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없었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관장을 잘못 임용해서 복지관이 협의회 회원에서 제명되고 개인으로 인해 운영법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법인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 이 사항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방안으로 영락교회에 앞으로 이상언 관장에 대한 관리를 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떠한지 다른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의 장 : 회원자격 상실의 문제만을 결정하는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일개 개인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단체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그 단체의 운영법인의 입장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치환 부회장과 부형종 이사의 의견처럼 영락교회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복지관장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 쪽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양은심 이사 :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해야할 주체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리고 그 복지관이 우리 협의회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으로 그 자격 상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영락교회에 어떠한 연락을 취한다는 식의 의견들이 있는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하다.
- 양광호 이사 : 현재까지 논의되는 의견들을 종합하면 두가지 정도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저도 한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하다. 이러한 일이 처음있는 일임으로 금회에 한해서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엄중 경고처분을 하고 그 운영법인에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사회나 회원들이 복지관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으니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 양은심 이사 : 법인에 보낸다는 것은 영락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
- 고치환 부회장 :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냥 영락교회로 보낸다. 그래서 바로 영락교회로 보내도 될 것 같다고 하다.

- 최영열 이사 : 회원가입신청서 운영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으로 되어있음으로 수신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이사장으로 하고 경유에 영락교회 담임목사님 이라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교회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법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으로 했다고 보여지고 현재 공문상에 명시된 운영이사회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로 영락교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영열 이사의 의견처럼 수신자는 공식적인 법인명을 써야하고 경유에 운영이사회인 영락교회 담임목사로 하면 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공문보내는 것은 차후에 검토하고 처리하면 될 것 이라고 하고 논의하는 안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자고 하다.
- 의 장 : 지금까지 논의한 의견들을 정리하면 제1안은 양광호 이사와 몇몇 이사들이 제안한 의견으로 이상언 관장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 운영법인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자는 의견과, 제2안은 회원자격 상실로 결정하자는 의견이라고 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김군택 이사 : 그렇다면 종전에 김호성 이사와 함께 제안했던 회원자격 상실에 동의한 의견을 철회하고 양광호 이사의 의견에 동의 한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양광호 이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고 김군택 이사와 김호성 이사가 제안했던 회원자격 상실 동의안이 철회되었으므로 양광호 이사가 제안한 의견대로 논의를 종결하자고 하다.
- 의 장 : 양광호 이사가 제안한 의견으로 처음 있는 일임을 고려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 운영법인에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제청하다.
- 의 장 :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의안 제3차 임시이사회 심의안건(회원자격 상실안) 최종결정의 건은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 운영법인에게는 똑같은 사안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하다.
- 부형종 이사 :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사하는 것처럼 사무실에 와서 사진이라든지 문서들을 보여달라고 했다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상 누구든지 무턱대고 찾아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해서 전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항을 유념하도록 김수완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다.

- 김수완 상근부회장 :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은 우리 협의회가 이사회 회의록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것을 출력해 와서 확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앞으로 부형종 이사님의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하다.



- 의 장 : 이번 이사회 사진촬영시간이 잘못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경고 한다고하며 앞으로는 모든 행사나 이사회 등의 사진촬영시 사진기 조작에 있어 다시한번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내온 공문에 기자회견 및 공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 김군택 이사 : 우리는 제2차 임시이사회를 한 것이 확실하므로 별도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별도의 기자회견 등의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하면 될 것이라고하다.
- 의 장 : 만일 공문의 내용과 같이 기자회견이나 공개질의를 한다면 그 때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다면지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된다고 하다.

8. 폐 회

- 의 장 : 오늘 장시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부형종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25)

2013년 7월 8일

회 장 : 이 동



이 사 : 고 치



부 형



양 은



고 두



최 영



확인자 : 김 수



기 록 : 김 성



김 재 익



양 은 정



양 광 호



김 호 성



송 옥



강 규



김 군



황 의

